

孫 “이광재 빈자리 민주당이 채울 것”

민주 지도부 평창 총출동 재보선 강원 민심잡기 나서

영입 1순위 거론 권오규 고사 고민

민주당 지도부가 16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원 민심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광재 전 강원 원지사의 고향인 평창을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을 자극한 것이다.

민주당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이날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최고위원-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전 지사의 빈 자리가 너무 크지만 민주당이 힘과 뜻을 모아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대표는 세계제약이 제공되는 관광특구 지정,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조기 추진 등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원도민의 소망과 이 전 지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초당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강원도민이 민주당 소속 지사를 뽑는 것이 이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에서 제철작업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지사가 길을 닦아놓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길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 전 지사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도민이 뽑은 이 전 지사를 정치보복의 희생양 이달 초 설 연휴를 강원에서 보낸 지 10여일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그는 강원 방문 일정을 17일까지 연장, 이 전 지사 후광효과를 노리며 바다 다지기에 나선다.

그러나 강원지사 영입 1순위로 거론되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계속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손 대표는 회의 후 강릉으로 이동, 강릉시청에서 폭설 피해 상황을 점검 한 뒤 제철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 초 설 연휴를 강원에서 보낸 지 10여일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그는 강원 방문 일정을 17일까지 연장, 이 전 지사 후광효과를 노리며 바다 다지기에 나선다.

그러나 강원지사 영입 1순위로 거론되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계속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아직 권오규 카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손 대표가 물밑에서 여러 인사를 접촉하며 강원지사 수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말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4·27 재보선 선거 후보 영입과 아권연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전 강원 원지사의 고향인 평창을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을 자극한 것이다.

박근혜 “과학벨트,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당 입장 밝혀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파기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어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시상식’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박 전 대표는 늘 현안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자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책임도 당연히 대통령이 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가 아닌 것은 안 하는 것”이라며 “할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에 대해서도 “만날 때마다 현안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다른 분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데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당 지도부이고 집권여당인데 이런 걸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복지정책(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의원의 본분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선택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제일 좋은 법안을 선택하면 되는 만큼, 먼저 법을 내놓고 논의해야지 비

판서도 “만날 때마다 현안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다른 분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데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당 지도부이고 집권여당인데 이런 걸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복지정책(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의원의 본분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선택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제일 좋은 법안을 선택하면 되는 만큼, 먼저 법을 내놓고 논의해야지 비

판서도 “만날 때마다 현안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다른 분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데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당 지도부이고 집권여당인데 이런 걸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판서도 “만날 때마다 현안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다른 분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데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당 지도부이고 집권여당인데 이런 걸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앞서 지난 10월 ‘구제역-조류독감으로 매몰지가 전국에 4000곳이 넘는다고 한다. 토양·하천·지하수에 대한 2차 오염도 큰 걱정거리’라며 정부의 구제역 대처 무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일부에서는 박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면 현안에 입장을 밝히며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원도민의 소망과 이 전 지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초당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與 지도부, 재보선 공심위 구성 논란

원희룡 구성안에 홍준표 등 반발

4·27 재보선 공심위(이하 공심위)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분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구성한 공심위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원 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에서 김재경·김규래·손숙미·정미경 의원과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을,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박보환·윤상현·정희수 의원 등 모두 9명을 공심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는 이 구성안을 오는 21일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與 지도부, 재보선 공심위 구성 논란

원희룡 구성안에 홍준표 등 반발

4·27 재보선 공심위(이하 공심위)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분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구성한 공심위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원 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에서 김재경·김규래·손숙미·정미경 의원과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을,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박보환·윤상현·정희수 의원 등 모두 9명을 공심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는 이 구성안을 오는 21일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與 지도부, 재보선 공심위 구성 논란

원희룡 구성안에 홍준표 등 반발

4·27 재보선 공심위(이하 공심위)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분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구성한 공심위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원 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에서 김재경·김규래·손숙미·정미경 의원과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을,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박보환·윤상현·정희수 의원 등 모두 9명을 공심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는 이 구성안을 오는 21일 최고위원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與 재보선 ‘총리급 벨트’ 성사 관심

강원 한승수 급부상... 분당 정운찬·김해 김태호 거론

여당인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 거물급 인사들을 총출동시켜 야당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재보선 결과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결과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리급 수준의 인사들을 최대한 끌어 모으기로 한 것이다.

강원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인물’, ‘고(故) 최규하 대통령 이후 강원도가 낳은 최고 인물’이라는 평

을 들을 정도로 강원지역에서는 최고의 인지도가 있는 인물, 한나라당이 최

선을 포함시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한 전 총리 본인은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점.

또 다른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임기영 전 MBC 사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실사가 끝나는 대로 한나라

당에 입당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강원도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한홍 전 건교부 장관과 최병희 현 강릉시장도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김해를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에 당에 입당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강원도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한홍 전 건교부 장관과 최병희 현 강릉시장도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김해를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에 당에 입당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강원도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한홍 전 건교부 장관과 최병희 현 강릉시장도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부정적이었던 당 지도부의 강력한 권유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던 김경수 불하재단 사무국장의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친노 및 아권연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김 전 지사 외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당 지도부의 출마 권유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을 보궐선거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 전 총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잇단 러브콜에 결국은 응하게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총리가 분당을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질 경우 출마를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승수 전 총리, 정운찬 전 총리, 김태호 전 지사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존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2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3월 11일(금)~2011년 12월 16일(금):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양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심관 4층)
-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지명특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지명특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